광주시 '미래산업 엑스포' 연다

모빌리티·뿌리산업·가전로봇 통합 호남권 최대 규모
29일~7월1일 DJ센터 300개사 전시·수출상담회 등
광주·전남합동 일자리박람회도…드론·오토캠핑 체험

광주시가 지역 대표산업인 모빌리티·뿌리산업·가전로봇 전시회를 통합한 호남권 최대 '미래산업 엑스포'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KOTRA), 광주 그린카 진흥원 등이 공동 주관한다. 그동안 그린카, 뿌리산업, 사물인터넷(IoT) 가전로봇 등 개별로 열었던 전시회를 올해부터 미래산업 엑스포로 통합해 호남 최대 산업 전시회로 명성을 쌓겠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전시품목은 완성차, 자율주행차, 자동차 소재부품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14대 뿌리기술, 가전, 드론, 로봇 등으로 300개사 500부스 규모이다. 관련 제품과 기술 전시, 기술세미나,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광주시는 통합홍보관을 통해 자율주행기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금형, 광주가전공동브랜드(GIEL) 등 광주를 대표하는 제품을 홍보하고, 방문객들에게 신기술·신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시회의 특징은 참가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는 게 핵심이다.

시는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와 1대 1 수출상담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대형유통사 등 70여개 사가 참여하는 동반성장 페어도 동시에 개최한다.

또 디알텍, 은혜기업, 현대하이텍, 한전 에너지밸리 기업 등 60개사가 참여하는 광주·전남합동일자리박람회도 열리며, 현장을 방문한 구직자들이 채용 면접, 취업 컨설팅,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시회 마지막 날에는 전국 초·중·고교생 1000여 명이 참가해 로봇컬링, 로봇씨름, 로봇창작 등 총 6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펼치는 빛고을로봇페스티벌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신성자동차 등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의 차량을 직접 시승하는 기회와 드론 체험이 가능한 상상드론 체험존, 최신 트렌드의 캠핑·레저용품을 선보이는 오토캠핑레저존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엑스포 개최를 통해 광주시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들이 판로확대와 수익증대 등 풍족한 성과를 얻어가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참가기업과 광주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영록 전남지사 '직무수행' 압도적 1위

11개월 연속…호남 대표 정치인으로 부상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11개월 동안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선 7기에 이어 60%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지지세를 이어가고 있다.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부재 속에 민선 7·8기 오랜 기간 높은 평가를 받은 김 지사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5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 결과 김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62.9%로 나타났다. 지난 4월 63.7%에 비해 0.8%p 하락했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째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긍정평가 1위를 유지했다. 김 지사는 앞서 민선 7기에서도 43개월 중 30개월 동안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과거 전남지사는 물론 전국 어느 광역단체장도 이처럼 오랜 기간 지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적은 없었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첫 평가에서 71.5%를 얻은 데 이어 8월 70.4%, 9월 68.4%, 10월 69.0%, 11월 67.6%, 12월 68.7%, 1월 72.6%, 2월 67.9%, 3월 67.1%의 지지를 얻었다.

긍정평가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62.8%), 3위는 김관영 전북지사(57.1%)가 차지했다.

리얼미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4월 26일~5월1일, 5월26일~31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해당 월 기준, 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5%다.

리얼미터는 다만 이번 5월조사부터 무분별한 인용·보도에 따른 지방자치제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자, 평가대상별 상위 10위내 결과만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은 1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날 창립대회는 지역 정치권, 재야 인사, 각종 단체 관계자를 비롯, 발기인과 시도민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이뤄졌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대회 대성황

DJ 정신·철학·사상 계승·발전…내년 1월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전개

광주전남 김대중 재단은 18일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단은 내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 전 대통령의 유산과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철학과 사상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날 창립대회에는 권노갑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과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재단 부이사장과 3남 김홍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비롯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 3000여명의 재단 발기인과 재야 인사, 시도민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권노갑 재단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의 유산과 공헌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힘을 받게 될 것이다"면서 "세계적인 지도자를 배출해 낸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대통령 선양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단 창립추진위원회 운영집행위원장을 맡아 재단 설립을 총괄하고 있는 최경주 이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내년 1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 전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 지도이념을 구현하고 실천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민주주의 후퇴, 경제위기, 남북의 평화위기 등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각계 각층을 뜻을 모았고,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재단이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추경안 통과…신사업 속도

7652억 늘어난 12조5751억…지역경제 활성화·민생안정 중점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목포~무안 오룡 '전남형 트램' 탄력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건설과 목포~무안 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 3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경제와 농·수·축산업 활력 제고, 민생안정 시책을 담은 '202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11조 8099억원보다 7652억원(6.5%)이 증가한 12조 5751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6110억 원(6.6%) 증가한 9조 8993억 원, 특별회계는 528억 원(5.0%) 증가한 1조 1026억 원, 기금은 1014억 원(6.9%) 증가한 1조 5732억 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에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등 건전재정운영 기조는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에는 과감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구체적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서남권 사회기반시설(SOC)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조 7900억 원 규모의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대불산단 대교의 연결 프로젝트'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1억5000만원) ▲4000억원 규모의 목포 구도심~무안 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을 위한 사전 검토용역비(3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서남권 거점공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와 전세기 유치 손실 보전 등을 위한 예산 19억원 증액 ▲공항 활성화 홍보(3억원) 예산 등도 새롭게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283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10억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30억원) 등도 편성됐다. 농·수·축산물의 스마트화와 품질향상 지원을 위한 ▲김 산업 진흥구역 조성(65억 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43억원) 예산을 반영하고 ▲천원의 아침밥사업(2억원) ▲국비 지원 중단에도 불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4억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세계기상기구(WMO) 등에서 발표한 하반기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른 고온, 폭우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난에 대비할 예비비(147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